

## 격려사

격려의 말씀에 앞서 태국 국왕 서거에 추모의 마음을 드리며, 슬픔에 잠겨있는 태국 국민들과 애도의 뜻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아시아국가 이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오늘,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주노동자로, 결혼이민자로 제각각의 사연을 품고 한국에 입국하여, 차가운 시선속에 문화도 언어도 다른 타국에서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국산업의 부족한 일손이 되어주었고, 저출산 고령화, 성비 불균형사회에 다문화가정을 일구며 한국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여기며,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다문화, 다종교 시대를 충분히 살피고, 그 흐름에 맞추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 이주를 하게 됩니

다. 국내 이주일 수도 있고 국제 이주일 수도 있으며, 자발적인 선택일 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국적, 인종, 문화 등 편의상 구분된 물리적 경계는 인연가합(因緣假合)일 뿐이니,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구분하지 않고 제법무아(諸法無我)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구는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생활의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은 잊고 오늘하루 만큼은 여러분의 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항상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